

다산포럼

1975년 4월 9일과 시노트 신부



김정남 언론인

나이가 들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오(悔悟)가 새삼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때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미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그것이다. 겪어 나온 옛날 일들을 더듬다가 어느 장면에서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칠 때도 있다. 지난 연말만 해도 1970년대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관한 구술을 하다가 나도 울고, 듣고 있던 대담자도 울어버린 일이 있었다.

1975년 2월 24일 9시 30분, 명동성당 사제관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유신정권을 향하여 인혁당 사건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면서 그때까지 확인된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제1차로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70~80매 분량의 이 진상보고서는 필자가 사제

단의 주선과 보호 아래 숨어서 쓴 것이었다. 가족들의 진술과 양심선언을 토대로 하고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상고 이유서, 그리고 변호인들과 관련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 작성하였다.

그걸 쓸 때도 그랬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도 치떨리는 분노와 눈물을 어쩔 수 없었다. 수사과정의 처절한 고문장면도 그렇지만 재판부가 이수병에게 “피고인들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이수병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변호인들과 가족들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공판조서는 “과거 인혁당과 같은 조직을 구성,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변조된 것이다.

1974년 11월 4일, 비상고등군법회의가 이들의 항고를 기각하자 초조해진 가족들은 그 억울함을 신·구교 기도회 등에 호소하고 다녔다. 그때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으니 제발 공개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족들이 구명을 애타게 호소하고 다니자 중앙정보부는 이들 부인네를 연행, 남편이 간첩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진술서를 쓰게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희희낙락 희롱까지 하는 작태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 부인이 집에 돌아와 그 수모를 참지 못해 자식들과 함께 자살을 꾀하다 친정 어머니한테 들켜 죽지 못하고, 내 식구가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슬픈 이야기는 차마 거기에 쓰지 못했다.

그들은 구속된 이래 죽는 날까지 누구 한 사람, 단 한 번 가족견문을 하지 못했다. 다만 이수병의 처는 기약도 없이 매일 서대문구치소로 출근하던 어느 날, 마음 착한 어느 교도관의 배려로 기적처럼 그 앞을 지나치던 남편을 볼 수 있었다. 딱 1분, 그러나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를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이라고 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로부터 18시간 뒤인 4월 9일 새벽, 이들 중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인 4월 8일 새벽 3시에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에 사형선고 통지가 접수되었고,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에는 집행 후인 4월 9일 15시에 사형선고 통지가 왔다. 사형선고 통지가 오기도 전에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저간의 사정은 인혁당 사건의 조작성 주도한 중앙정보부 6국장 이용택이 지난 2005년의 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대법

원에서 상고기 가각되던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상부 지시가 국방부에 전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이 유신시대의 한가운데 모습이었다.

얼마 전 시노트 신부가 선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노트 신부가 1975년 4월 9일, 사형장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죽김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끌려가는 사진이 외신에 크게 실렸었다.

그는 또 죽김 이후의 시신 확인 과정을 선교회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 국제법학자협회가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인혁당 사건이 BBC 다큐멘터리(Anno Domini BBC I)로 제작되어 나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로 그는 1975년 4월 30일, 끝내 한국정부로부터 추방 당했다. 1989년, 14년만에 정식비자를 받고 입국, 김포공항에서 인혁당 사형수 8명의 가족과 눈물의 재회를 했다. 2004년 10월에는 ‘1975년 4월 9일’이란 책으로 이 사건을 증언했다.

2015년 4월 9일은 인혁당 사건 관계자 8명의 40주기가 되는 날이다. 기억하라, 1975년 4월 9일.

社說

짜증나는 무등산 주차난, 국립공원 맞는가

국립공원 무등산 원효사지구 등산로 입구 도로가 주말마다 관광버스를 비롯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왕복 2차선 도로 갖길에 등산객들의 차량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뒤엉키고 실랑이까지 벌어지는 등 등산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원효사지구에는 국립공원 승객 이후 탐방객 수가 30~40% 늘면서 주말과 휴일 평균 700대 가량의 차량이 몰리고 있다. 주차 가능한 면적은 230대뿐인데 무려 3배의 차량이 몰려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도로 양측의 불법주차는 다반사이고 원효사 입구 시내버스 종점까지 도로 1.5km 정도가 꽉 막힌다고 한다. 늦어도 2~3분이면 통과할 이 구간을 무려 1시간 걸려 도착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차량을 다시 돌려 내려오면서 혼잡이 극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주차난은 비단 무등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상하행 차량들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고성을 지르는 불성사나운 모습마저 연출된다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힐링을 생각하며 무등산을 찾은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비칠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산의 품격은 등산 시작 전 주차에서부터 드러난다. 일단 등산객들이 몰리는 피크타임이라도 경찰과 구경,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와 주차단속과 정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 국립공원 측과 광주시 등은 근본적인 주차문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국립공원이라 안 된다는 방어적 자세는 버려야 한다. 법과 규제의 틀 속에서도 주차난 해소의 모범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의 지적처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출장사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말·휴일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잇따른 장성군수 낙마 ‘반면교사’ 삼아야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유군수에 이어 김양수 전 장성군수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들이 모두 부정선거에 연루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16일 항우 모임에서 노인들에게 식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군수의 부인 이청전 군수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군수의 경우 과거 군수로 당선돼 한차례 낙마했고, 이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전 군수도 앞서 군민에게 욕설하고, 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군수 아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전·현직 군수 부

부 4명이 부정선거로 인해 집안 망신을 당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장성군수 선거는 유두석 군수와 그의 아내 이청 전 군수, 김양수 전 군수 등 두 집안간의 갈등으로 잇따라 당선과 낙마를 거듭해 왔다.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혐오가 확산됐고, 지역 이미지마저 급격히 추락했다.

결과적으로 장성군의 불명예는 이들을 당선시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동안 보결선거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렀고, 이 또한 주민 열세로 충당됐다. 군수 공백으로 행정이 결손돼 선거 때마다 공무원과 지역민의 출사가 극에 달해 행정의 난맥상과 후유증도 적지 않다.

이제 더 이상의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 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행정 안정과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더럽혀진 장성군의 이미지를 씻는 길이기도 하다. 타지역 유권자 역시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정춘 특·특

이제는 광주의 저력을 세계로 알릴 때



박찬현 호남대 영어영문학과 2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한 올미년 새해. KTX 완전개통과 광주송정역 완공,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일들이 목전에 두고 분주한 광주에게 2015년은 매우 뜻 깊은 해다. 광주주 대학에 재학 중인 필자 역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라 매일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나 필자에게 올해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7월 중에 개최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 대회’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광주를 찾는 대학생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 등 많은 이들과 함께 모여 화합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U대회가 선발하는 영리포터로서 대회를 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벅찬 가슴을 주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필자는 평소 많은 세계인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광주U대회는 그 꿈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그들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기 시작했다.

U대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이 U대회 진행위원회로부터 5개 프리미엄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됨은 물론 교내 학생들이 U대회 관련 기획기사 등을 연재하며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해 온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학 내 언론기관인 통합뉴스센터의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대회 곳곳을 누비게 될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멀티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대회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영어로 하는 취재활동 등을 연습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12일 ‘소박, 경제, 선수, 민중, 안전’ 등 5개의 성공 키워드를 선정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대회를 목표로, 광주를 찾는 전 세계 대학생과 방문객에게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광주시민의 정성이 담긴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이 같은 성공 키워드를 참고해 볼 때 필자와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은 물론 광주 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대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생들을 포함한 광주시민 역시 광주를 찾는 모든 이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광주가 U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당시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세계를 감동시켜 개최도시 선정을 가능케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해를 거듭하고 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제는 그 열정과 노력의 성과를 보여줄 차례만 남았다.

120개국으로부터 1만1000여명의 선수단이 등록해 지난 2013년 카잔U대회 선수단 규모를 무난히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임박한 이때 전력을 다해 전 세계인이 기억할 수 있는 광주U대회를 만들어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며 필자 역시 최선을 다해 대학생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이야말로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릴 적기이다.

기고

교통약자에게 너무 힘든 금남로 횡단



윤창희 국제라이온스협회 전 총재

9월 개관을 앞둔 문화의 전당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문화전당 북쪽으로 금남로 1가부터 5가까지 6차선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고 도로 밑으로 지하상가, 그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의 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금남로 도로의 동서 간의 보행자 이동이 문제다. 장애인 노약자 입산부들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금남로 1가에서 5가까지 횡단보도를 헤아려 봤더니 7개가 있는데 1가에서 3

가까지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다. 없다고 해서 동서를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지하계단으로 내려가서 계단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 가면 된다. 더 편리한 것은 동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서쪽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면 된다.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금남로 1가에서 5가까지 4개가 있다. 4가, 5가 엘리베이터는 짝이 맞아야 제구실을 하는데 서쪽에만 있고 동쪽에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문화의 전당 앞마당에는 동서 양쪽에 잇달라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나 서쪽 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동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좀처럼 찾기 어려운 서쪽 엘리베이터를 가보면 고장중일 때가 많았다. 교통약자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 깊은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 불평불만이 많았다.

뜨거운 눈물을, 불편한 손으로 뒹으며 돌아선 어느 장애인을 봤을 때 몹시 마음이 아팠다. “장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데 5분 걸립니다.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

다. 가동중일 때 쓰여 있는 안내문이다. 반쯤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경기를 부린다. 달달 땀기 시작한다. 금방 추락할 것 같은 무서움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옆에 타고 있던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철반에 양손을 대고 “아이고 나 살려줘”한다.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났을 것이다. 다른 곳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약자용이라 쓰여 있어도 초면 오르내리는데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세월호 참사 중에도, 환풍구 추락사고가 있는 중에도 이 엘리베이터는 위험의 소리를 알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안전사고에 대한 말이 들끓고 있을 때다. 심한 안전불감증이다. 심할수록 시민의 생명은 위태로움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쑥한 엘리베이터는 2014년 11월

24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져 굳게 닫혀 있다. 관리하는 기관은 수리를 또는 교체

를 언제까지 한다는 이면저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야 할 것 같다. 넓은 광야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TV 장면을 보았다. 강이나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긴 다리 위로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해설자의 말이다. 먹이를 찾아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란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배려다. 교통약자들도 생활 하느라 금남로 동서쪽을 오간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7월에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고 9월에 개관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말쑥이라면 당국은 시급히 수업을 볼 듯 최우선을 다하여 엘리베이터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야의 동물 대우를 받고 싶다는 교통약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일이다.

無等鼓

신안 흑산도에서 15년간 유배생활을 한 실학자 손암 정약전(1758~1816년) 선생은 ‘자산어보’를 저술하며 어류뿐 아니라 ‘해조’(海藻=바다조류) 항목을 빼뜨리지 않았다. 미역(海帶)과 김(海苔), 감태(甘苔)를 비롯해 무려 30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취가 쉬운 녹조·해조류가 그만큼 어촌 주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가운데 계절풍을 타고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다년생 갈조류(槲蕨類)인 모자반도 주요한 식재료였

다. ‘마미조’(馬尾藻)로도 불리는 모자반은 어민들은 나뭇물 무치거나 국으로 끓여먹었고, 중이가 귀하던 시절에는 뒤뚱개로까지 썼다고 한다. 또 바닷속에서는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고 해중림(海中林)을 이루는 까닭에 물고기들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저래 쓰임새가 많은 해조인 셈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내는 쇠고기와 모자반이 준비되면 일부러 소주를 마신다. 밤새 퍼마신 다음날 시냇길 눈으로 여, 어허, 소리를 내며 국을 퍼먹는다...나도 속주에 시달리다가 보면 이 국이 간절할 때가 있다. 끓여먹으면 텁텁한 입이 순간 풀리면서 무겁게 달라붙

어 있던 슬기운이 쭈욱 내려간다. 달고 시원하기 이를 데가 없다...”

여수 거문도에 사는 소설가 한창훈은 에세이집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에서 모자반 국에 대해 맛깔나게 묘사한다. 속을 일순간 개운하게 풀어 줄 해장이 절실한 술꾼들이 입맛을 다실만한 대목이다.

모자반 국은 참모자반에 육고기나 해산물을 넣고 적국 간장으로 간을 쳐 끓인 것인데 특히 소내장을 넣고 끓인 것이 일

품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이를 거문도에서는 ‘물국’, 제주도에서는 ‘물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모자반이 해양쓰레기와 뒤섞여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타고 흑산도를 비롯한 신안지역 해안가로 유입되고 있어 어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북과 다시마 등 양식장 시설물 파손은 물론 수거한 모자반이 썩으며 침출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추억의 먹거리가 바다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향해 환경모니터링과 함께 수거한 모자반의 활용방안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